

부산환경공단 환경 기술 개발·에너지 자립에 박차

부산환경공단(이사장 배광호)은 2000년 1월에 설립,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부산시 산하 공기업이다. 현재 하수처리장, 소각장, 매립장, 분뇨처리장과 같은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고,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사업,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 자원순환협력센터 등 시민 생활환경과 밀접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부산환경공단은 다수의 주요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 기관의 역량과 전문성을 검증받았다.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 운영은 물론, 친환경 경영과 조직혁신, 사회적 책임 등의 경영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다.



1 배광호 이사장 2 남부하수처리장



2

공단은 9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는 4년 연속 최고 등급으로, 전국 249개 지방공기업 중 유일하다. 기관 간 경쟁이 치열한 정부 경영평가에서 이렇게 연속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는 쉽지 않다. 또 최근 부산광역시가 주관한 공사·공단 기관장 평가에서 배광호 이사장은 산하 공기업 6곳 중 1위로 높은 성적을 받았다.

이밖에 2020년 행정안전부 혁신우수기업 선정, 2019년 대한민국 환경·에너지 대상 환경부장관상, 2019년 지방공기업 발전유공 국무총리 표창 수상 등을 통해 환경공단은 명실상부한 환경전문공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로 취임 2년을 맞은 부산환경공단 배광호 이사장은 그간 혁신을 지속해서 강조해왔다. 배 이사장은 조직, 경영, 사업, 기술 등 상당한 부분에 눈에 띄는 성과를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효율적 사업 운영을 위해 20년 만에 처음으로 '사업단 체제'로 개편했다. 경영, 물 재생, 자원에너지 분야로 나눠 사업단을 운영하고, 현재 인근 지역에 위치한 처리장들을 묶어 하나의 단에서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있다. 간부 무보직제, 창립 최초 특별승진 및 전직 시행 등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 혁신도 주목받고 있다.

현장 중심의 환경 기술 혁신과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관리 등을 통해 환경 전문 공기업으로서의 면모도 다졌다. 기술 개발을 위해 공단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노력은 물론, 지역 내 기업, 대학, 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환경산업 성장을 이끌고 있다. 기업의 환경 기술 현장검증을 위한 '테스트 베드'(Test-Bed)를 지원하고 글로벌 환경 기술 개발에도 지역 중소기업을 참여시켰다.

이밖에 주민참여예산제, 청렴 옴부즈만, 시민 제안 등 경영 활동에 시민들이 참여할 기회를 확대했다. 환경보호와 자원순환의 가치를 시민과 함께 나누는 환경캠페인과 환경교육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에코백RUN 범시민 환경캠페인'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지역 환경단체, 사회적기업과 함께 '플라스틱 ZERO 기업문화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배광호 이사장은 "앞으로 환경 기술 혁신에 더 초점을 맞출 생각이다. 공단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곳곳과 힘을 합치겠다"며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환경문화 실천 운동'을 확대하고, 글로벌 환경 전문 공기업으로 거듭나는 공단의 모습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고 포부를 밝혔다. ①



부산환경공단은 하수처리장, 소각장, 분뇨처리장, 매립장,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자원순환협력센터 등을 운영하는 환경전문 공기업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큰 꿈을 꾸습니다.

부산환경공단의 기술로 세계를 품다!

글로벌환경도시 부산을 열어갑니다.